

CEO Report

Next Insurance (II):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김세중·김유미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향후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Next Insurance”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함

먼저 인구 고령화는 보험시장의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위험보장을 넘어선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담보가 불가능한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 확대 등이 요구됨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은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할 것임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 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간병·요양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채널 또한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저연령 시장의 경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채널 전략이 유효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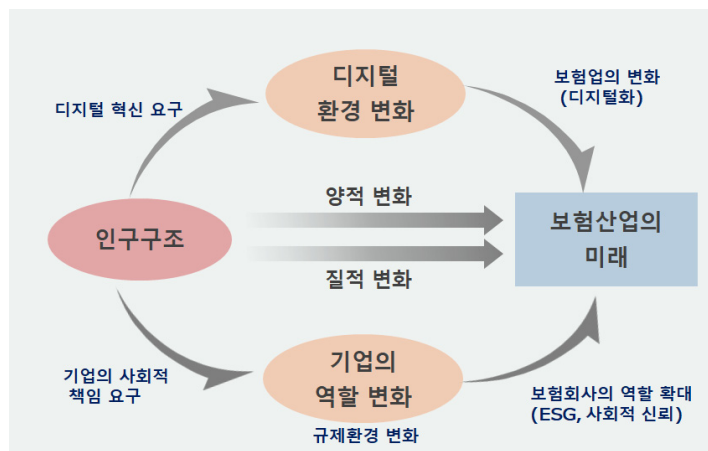
한편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I

검토 배경

-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인구는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 심화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심화는 보험산업의 성장성 약화, 보험소비층과 니즈 변화 등을 통해 보험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들 세대가 주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경우 차별화된 가치관과 소비방식에 대응해야 함
 - 한발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는 세대 간의 이질성을 더욱 확대하고, 공적보장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보험'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음
- 한편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여 보험업의 변화를 야기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를 통해 ESG, 사회적 신뢰 등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험산업의 중요한 환경변화라 할 수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파생되거나 그 영향이 증폭되는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가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음

〈그림 I-1〉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또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양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업, 소비자 주권 향상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는 규제 환경 변화를 통해 보다 뚜렷해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망해 봄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비전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
- MZ세대의 부상,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을 인구구조 변화 속에 아울러 녹여낸다는 것이 다소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인구구조의 양적 변화와 상호연관되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 조망하는 보험산업의 미래는 2~3년의 단기적인 미래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래를 의미하며, 따라서 다소 불확실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논의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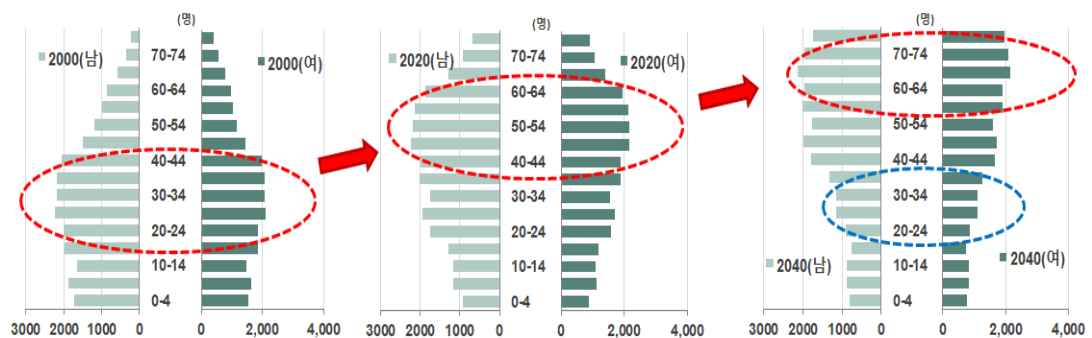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와 영향

1. 인구구조의 양적 변화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과거 고연령에서 저연령으로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항아리형 구조에서 고연령에서 저연령으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역삼각형 구조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

- 20년 전인 2000년 인구구조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20~40대가 주축이 되는 건강한 모습이었으나, 현재는 40~60대가 주축이 되는 인구구조이며, 20년 후인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은퇴자가 주축이 되고 20~40대 인구는 이들의 절반에 불과한 전형적인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함
- 통계청에 따르면 중간 연령대인 35~44세 연령층 인구는 2008년 약 865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약 60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에서 2020년 43.7세로 증가하였으며 20년 후인 2040년에는 54.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 인구피라미드 변화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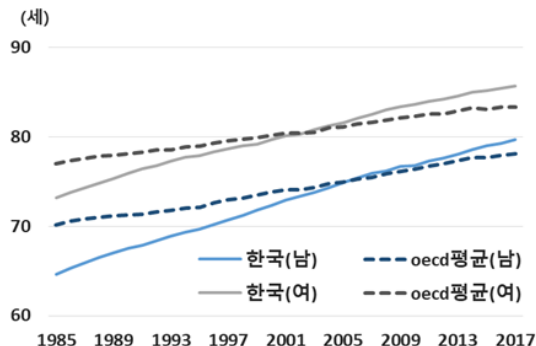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9년 남녀 각각 80.3세, 86.3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30년에는 기대수명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980년 65세 수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남녀 합산 평균 기대수명은 2008년부터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대수명은 남녀 각각 80.3세, 86.3세임
- 현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 독일과 유사하고 미국보다는 높으며,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WHO와 Imperial College London(2017)에 따르면 세계 35개 주요국의 기대수명을 전망한 결과 2030년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은 84.1세, 90.8세로 35개국 중 가장 장수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의 고령화는 연령별 사망률이 급격히 개선되는 동시에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최대 생존할 수 있는 한계연령 또한 연장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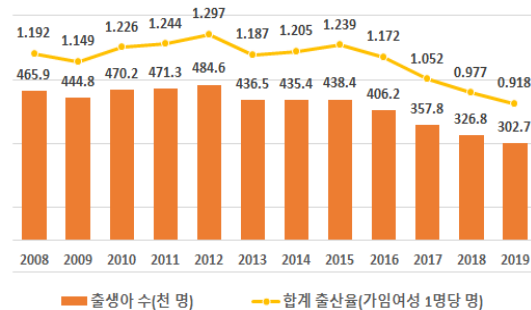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연령별 사망률은 지속적인 개선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0~70대 고연령 사망률이 2000년 이후 OECD 주요 장수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김세중 2017)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0.98명, 0.92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 한편 Wilmoth and Robine(2003)에서 스웨덴을 포함한 벨기에, 덴마크 등 7개국의 최대 생존연령을 분석한 결과, 최대 생존연령이 평균적으로 10년마다 1.4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 OECD 주요국 기대수명 추이



자료: OECD

〈그림 II-3〉 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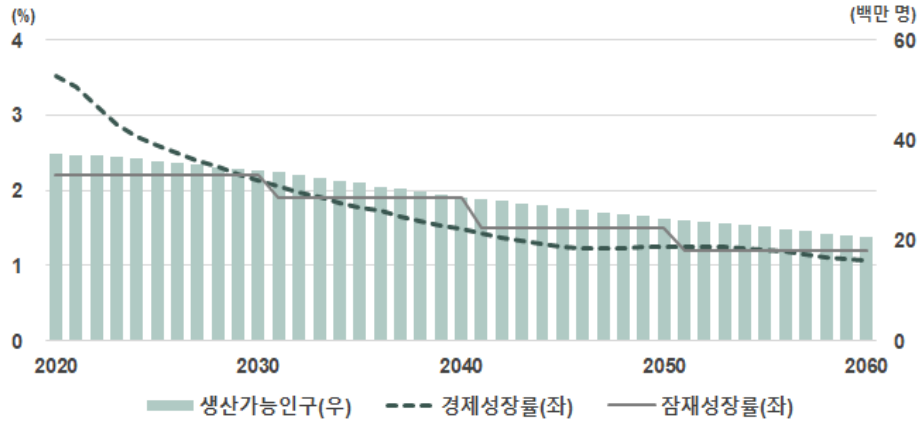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임

- IMF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1%대로 하락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의 저성장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김세중(2019)

○ 실물경제의 저성장은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 온 보험산업의 성장여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난 20년간 보험산업 평균 성장률은 6.3%로 명목경제성장률인 5.1%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보험료 규모의 변동성은 명목경제성장률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음
- GDP 대비 보험료 규모를 의미하는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2000년 10.5%에서 2020년 11.5%로 정체 되고 있음
- 보험산업이 현재의 사업구조를 고수한다고 가정한다면, 경제규모 축소는 직접적으로 보험산업 매출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임

○ 한편 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보험수요의 중심축을 고령층으로 이동 시키고 저연령 보험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부차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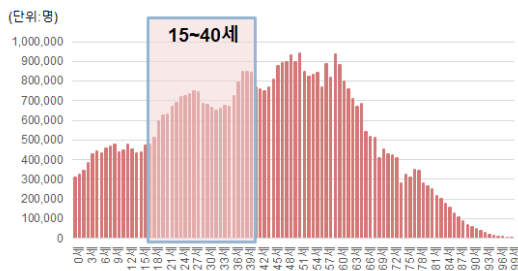
- 최근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보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병자 건강보험, 간편보험 등 고령층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한 바 있고 치매보험과 같이 고령층의 니즈가 높은 보험상품을 개발함
- 향후 보험회사는 보험수요의 중심축인 고령층의 니즈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연령층의 경우 인구 감소와 함께 혼인 및 출산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수요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음

2.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

○ 인구구조의 양적 변화는 고연령 인구의 증가와 저연령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대변화의 질적 변화를 고려할 경우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의 이질성이 분명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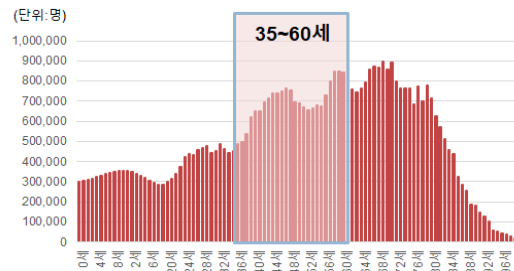
- MZ세대는 출생연도 1982년부터 2004년생까지의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Z세대를 의미하며, MZ세대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함
- MZ세대는 향후 주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로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화를 주도할 세대가 될 수 있음
- 20년 후인 2040년의 인구구조를 보면 MZ세대의 연령은 35~60세로 65세 이하인 저연령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 고연령층과 65세 이하 저연령층의 이질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5〉 2020년 연령별 인구분포와 MZ세대



자료: 통계청

〈그림 II-6〉 2040년 연령별 인구분포와 MZ세대



자료: 통계청

○ MZ세대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민감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취미와 관계망을 선호하고 호불호가 명확하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소비행태로 투영됨(고승연 2020)

- 유년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하면서 신기술에 민감하고 이를 자신의 소비생활에 적극 활용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장기적인 성공과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행복을 추구함
- 소신을 따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믿음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며, 좋은 일을 하는 기업 혹은 인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분노함
- MZ세대들의 일반적인 소비형태는 과잉보다는 절제된 소비로 나타나지만, 본인의 영역에서는 과감한 소비를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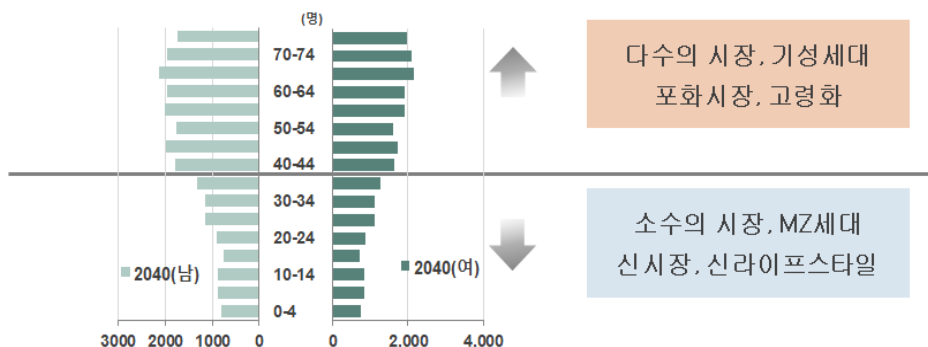
○ 보험산업이 새로운 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접점 강화, 상품 및 서비스 단순화, 디지털 및 바이럴 마케팅 등이 필요해 보이며, 나아가 회사의 평판관리와 영업활동 이외의 영역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미있는 것을 지향하는 특성에 대응하여 소비자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를 중시하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현재에 얻는 효용이 분명하며 간단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판매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면채널보다는 디지털 채널 활용도를 높이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 새로운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회사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회사라는 인식을 확보하고, 영업활동 이외의 영역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형성해야 함

○ 고연령 인구 확대와 저연령 인구 감소의 양적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MZ세대의 부각은 소비자 집단의 이원화를 통해 보험시장 분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인구비중이 높으나 포화되어 있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며, 건강 및 노후소득 니즈가 높은 고령층 시장과 인구비중은 낮지만 포화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 시장은 이질적인 시장임
- 두 시장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사업모형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새로운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7〉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시장의 이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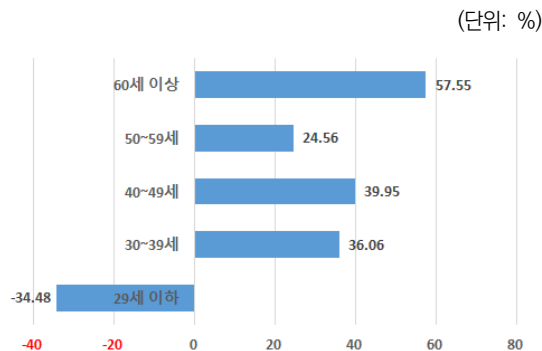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MZ세대 부상에 따른 인구구조의 이원화는 소득 및 부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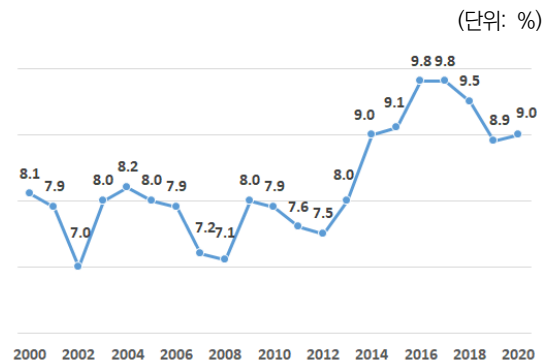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9세 이하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9세 이하 연령대의 순자산 감소는 청년실업률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15~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상승한 후 2020년 9%에 머물고 있음
- MZ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의 낮은 소득과 순자산은 기성세대에 비해 자산형성에 뒤쳐진 현실을 만회하기 위한 이른바 '영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 간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II-8〉 연령별 순자산 증감률(2012~2020년)



자료: 통계청

〈그림 II-9〉 청년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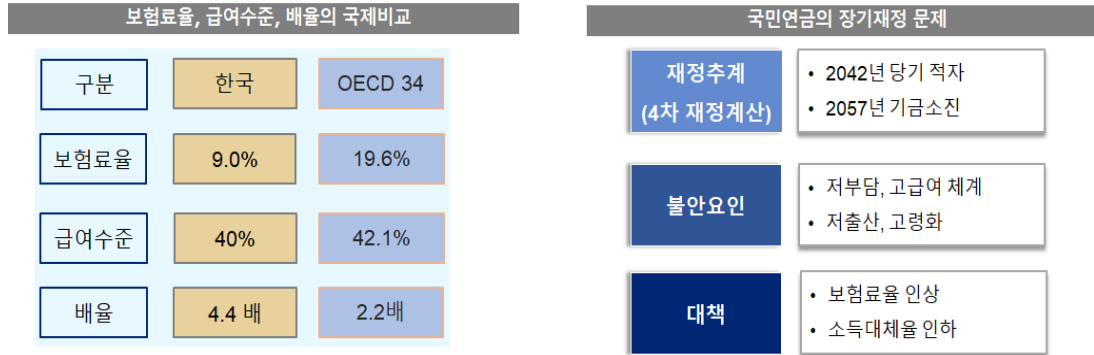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세대 간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MZ세대의 특성과 맞물려 세대 간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공적보장 시스템에 대한 갈등으로 표면화될 수 있으며, 청년세대의 소득을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시도도 예상됨

- 2018년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가가 불가피한 상황임
- 그러나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에 대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음
- 한편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세대 간 부를 재분배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수 있음

〈그림 II-10〉 공적연금 재정 현황 및 문제점



자료: 강성호(2019)

○ 보험산업은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장 시스템의 약화와 저연령층에 대한 새로운 공적보장 논의 과정 속에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

- 세대갈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부 및 보험료 조정이 지연되고 공적연금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경우, 공적보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사적안전망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음
- 한편 저연령층의 소득 감소는 보험가입 여력 감소를 야기할 것이나 저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은 보험가입 여력 축소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도 있음

III

보험산업의 대응

-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져올 경제 저성장에 따른 보험시장 축소가 예상되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둔화는 전통적 보험산업의 축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보험가입여력 약화 또한 보험산업 성장에 부정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세대의 부상은 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빅테크는 일상적인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종합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험을 제공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고객접점 확보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확대도 예상됨
 - 보험산업 성장정책의 해결책은 보험산업의 영역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위험보장을 넘어선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담보가 불가능한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 확대 등이 요구됨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산업 내 경쟁심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 및 선택권 확대로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쟁심화에 대응해야 함
 - 공정경쟁과 충실한 소비자보호가 유지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향상 및 선택권 확대에 따른 이익이 클 수 있음
 - 기존의 보험산업은 새로운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을 위해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할 것임
 - 보험회사가 새로운 사업모형을 발굴하여 위험의 보장을 넘어선 리스크컨설팅서비스, 종합금융서비스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성장성 제고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새로운 경쟁구도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임
 - 전통적 사업모형은 보험시장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해외진출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시장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 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보험시장은 인구비중이 높으나 포화되어 있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시장과 인구 비중은 낮지만 신시장이며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 시장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며, 세대 간 소득 및 부의 양극화는 시장 분화를 심화할 것임
-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경쟁은 주로 저연령층 시장에서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각자의 강점에 따라 시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요양 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채널 또한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고령층에 편중된 부의 양극화는 상속의 형태로 젊은 세대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 컨설팅과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연령 시장의 경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채널 전략이 유효할 것임

○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 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안전사회로의 이행, 건강보장시스템 및 의료기술의 발전,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 위험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고 후 손실보상이라는 전통적 보험 니즈는 축소되고 있으며, AI 기술의 확산, 뉴모빌리티, 바이오 혁신 등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임
- 보험산업은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MZ세대가 ‘보험’이라는 개념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MZ세대의 부상과 전통적 위험의 감소에도 ‘보험’이 미래 소비자에게 삶에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환영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 손실보전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개념으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아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임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MZ세대까지 고령층이 되는 206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인구비중이 46.1%로 절반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는 고령층 중심의 사회구조로 변화할 것임
 - 사망률과 출산율을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할 경우 고령화 심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임
- 인구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은 고령층 위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
-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치매, 간병·요양 등 정신건강 관련 보장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중심의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성호(2019),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보험연구원

고승연(2020), 『Z세대는 그런 게 아니고』, 북저널리즘

김세중(2017), 「고연령 사망률 변화추이 국제 비교」, 『고령화 리뷰』, 보험연구원

_____(2019), 「국내 보험시장 위기감 고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국제세미나, 보험연구원

통계청(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_____, 『인구총조사』 각 연도

_____,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Imperial College London(2017. 2. 21), “Average life expectancy set to increase by 2030”

Wilmoth, J.R. and Robine, J.M.(2003), “The world trend in maximum life s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 pp. 239~257

OECD, Insurance Statistics

저자약력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CEO Report 2021-08호

Next Insurance (Ⅱ):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발행일 2021년 8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